



김광수 교육감 “학교체제 개편안 9월 공개”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학교 시설·전환 관련 입장 “단성중 남녀공학 전환은 동 지역 공립중 4곳 먼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아직 포기하지 않아” 답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학교 체제 개편에 대한 밀그림을 오는 9월 마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선 제주시 동 지역 공립 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 질문문을 진행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내 14개 단성중 모두 대상이지만, 우선은 제주시 동 지역 4개 공립 남중·여중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홍보와 정보 제공을 위해 지난달 남녀공학 전환 정책 포럼을 열었으며, 남녀공학 자문단을 구성해 전환 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별 설명회와 초·중·고등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9월쯤 세부적인 전환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습고 및 체육고 신설 또는 전환 공약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교육감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술인과 체육인, 도민들은 신설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은 어렵다”며 “신설 외에 전환



오승식 의원 양영식 의원

또는 이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예술고 체육고에 대해 향후 교육의 효과성, 재정 투자 및 지속성을 고려해 조금 더 고민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면서도 “설문조사 포럼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및 도민 전문가 토론을 거쳐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올해 9월까지의 마린할 예정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공약에 관한 입장에 표명했다. 이날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대해기자)

제주시 연동갑)은 “신제주권 이제 교육 인프라와 관련해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및 이전, 전환”이라며 “신설은 완전히 물 건너 갔는가”라고 김 교육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며 “신설은 정말 물 건너 갔다고 보더라도 재배치도 있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악착같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양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것도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제주고들) 일반고로 전환하게 되면 여학생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김 교육감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강대해기자 dhkang@halla.com

문안잡에서

“한 뼉의 턱을 넘어 공존의 사회로”

지난 4월 20일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정치권은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민·관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고, 언론에서는 기획보도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서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객 등 모두가 제주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여행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이 얼마나 깊고, 그리고 이러한 관심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거러와 즐길거리일 것이다. 하지만 먹거리를 빼놓을 수는

건물 입구 한 뼉 높이 턱 누군가에게 넘지 못할 산 무장애 관광도시 넘어 장애인화도시로 거듭나길

없을 것이다. SNS가 발달하면서 제주지역 마을 구석구석에 카페, 식당 등 곳곳이 먹거리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카페나 식당, 숙소 등의 출입구에는 계단이나 턱이 많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관광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2026년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인의 축제가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에 관

한된 것이 아니다. 2026년 제주에서 전국체육대회와 함께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인의 축제가 제주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과 접근권에 관



홍인숙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해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또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이 공영,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 시설,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물로 한정하고 있다. 건물 면적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의 선의에 기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는 아주 낮은 한 뼉의 턱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생존의 문제일 수 있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과 어르신, 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두의 1층’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 미적용 소규모시설에 시설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여 휠체어, 유아차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본 의원 역시 장애인이 제주도의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고 제주도정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짐으로써 제주시 무장애 관광도시를 넘어 장애인화도시로 거듭나고, 1년 365일 매일매일 장애인이 행복한 장애인의 날이 되길 기대해 본다.

>>1면에서 계속

이 자리에서는 외교부 협조 하에 보상금 지급에 누락이 없도록 국적 이탈자의 주소 파악 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군사재판 수형인 미특징자 발굴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안전감은 “재일본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 보상금 지급에서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본 내 유족회 등 기관·단체들과 협력해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11월 7일 4:3희생자 보상금 첫 지급 이후 4월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청구권자 4만9639명 중 3만8923명에게 296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해외거주자 702명에 대한 58억원의 보상금 지급까지 포함된 규모로 전체 지급 대상자 중 78.4%이며 21.6%인 1만716명은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고 있다

외도동 학생·신성여중고생 통학 불편 도마에

교육행정질문에서 지적 교육감 “살피지 못해 반성... 현장부터 우선 파악하겠다”

제주시 외도동 지역 학생들과 신성여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버스 노선 문제로 통학에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들며 김 교육감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우선 이런 걸 진작에 교육감이 살피지 못해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경심 의원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외도 지역에서 노형중학교로 가는 버스가 너무 적다”며 “노형중에 가는 학생들만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출근하는 직장인도 많이 타게 된다. 아이들이 버스를 놓치면 출근하는 부모들이 발길을 돌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신성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도 버스가 만원이 돼서 통학하는 데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감이 정말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로 살피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제가 대중교통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등하교 현장을 우선 확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버스 배차가 왜 모자란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또 “신성여중·고의 경우 하교 시간이 같으면 학생들이 숫자가 2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버스가 고부출처럼 늘어날 수도 없는 일에서 아주 날리가 난다는 얘기도 들었다”며 “현장을 우선 파악해서 제주도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대해기자 dhkang@halla.com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 개최 안내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원장 문만석)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1회 제주 에너지 전환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이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프로그램

일시	장소	강의 주제	발표자
4.26(금) 18:30	아스타호텔 연회장(2층)	탄소중립시대, 세계 에너지 전환의 전망과 전략	이유진 소장 (녹색전환연구소)
5.10(금) 18:30		기후위기 대응: 기후테크와 기후금융	정태용 교수 (연세대 국제대학원)
5.31(금) 18:30		기후위기 시대, 국회의 대응 방안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이혜경 입법조사관 (국회 입법조사처)
6.10(월) 18:30		대용량 수소 저장 및 운송	남석우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정책토론회

- 일시 : 2024. 6. 14(금) 15:00
- 장소 : 아스타호텔 연회장(2층)
- 주제 :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제주대 오홍식 교수)

주최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연구포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에너지공사, 한라일보, 헤드라인제주

※ 문의 : (사)한국지역혁신연구원(064-756-3434)

청정 임산물 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산림조합에서는 임산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청정임산물 출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정 임산물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시 소재 농지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
- 대상품목 : 표고버섯, 고사리, 취나물, 산양삼, 도라지 등 임업및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의 임산물 품목중 더덕을 제외한 식용가능 임산물
- 지원기준 : 도외 물류비 60% 정액 지원
- 조합원 및 계통출하자 : 1입가당 / 1,500천원 한도 지원 - 이 외 생산자 : 1입가당 / 1,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신청자가 많을 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원서 작성 신청 => 도외출하 => 도외출하 확인서 (운송장 및 계통출하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정산신청 => 출하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5일(목) ~ 5월 14일(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신청서는 제주산림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주 소 : 제주시 일주서로 7815 (63116) · FAX 064-744-4883 e-mail 주소 : cheju4883@hanmail.net
-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필수 ☎064-743-4883

□ 문의처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산림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64-743-4883

sj 제주산림조합

더덕도외 출하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산림조합에서는 더덕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더덕 도외 출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덕 생산농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더덕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대상 : 제주시 소재 농지에서 더덕 재배하는 농가
- 지원기준 : 더덕 도외 출하 물류비 지원
- 조합원 및 계통출하농가 : 1입가당 / 1,500천원 한도 지원 - 그 외 농가 : 1입가당 / 1,000천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신청자가 많을 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 지원절차 : 지원서 작성 신청 => 도외출하 => 도외출하 확인서 (운송장 및 계통출하 확인서 등) 지참하여 정산신청 => 출하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4월 25일(목) ~ 5월 14일(화)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E-mail 접수 (신청서는 제주산림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주 소 : 제주시 일주서로 7815 (63116) · FAX 064-744-4883 e-mail 주소 : cheju4883@hanmail.net
-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접수확인 필수 ☎064-743-4883

□ 문의처

-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제주산림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주산림조합 기술지도과 ☎064-743-4883

sj 제주산림조합